



제55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9월 13일)

##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이정은 | 306호 인도·동남아시아실 | 18:00~18:30

불상은 기원후 1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대승 불교가 흥기하면서 붓다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발달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불상의 출현을 가져왔던 것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후 불교 미술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불상의 탄생은 인도의 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한 곳은 델리의 남쪽 야무나 강 유역에 위치한 마투라였고, 다른 한 곳은 고대 인도의 서북단, 지금의 파키스탄 북쪽과 아프가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간다라였다. 불상의 탄생에 있어서 마투라가 먼저였는가, 간다라가 먼저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학자들간의 논쟁을 있어 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투라의 불교 미술이 고대 인도 미술의 기초 위에서 등장한 반면 간다라 미술은 거의 전적으로 외래 미술, 특히 서양 고대후기 미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도 서북쪽의 간다라에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래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신관神觀과 신상, 미술양식도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서양 고전 미술의 신상과 흡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인도 본토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래 마우리아 제국의 도읍이었던 파탈리푸트라를 중심으로 인도 재래의 풍요신인 약샤와 약시상이 만들어졌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갠지스 강의 상류, 그 지류인 야무나 강 유역에 위치한 마투라에서는 간다라 지역의 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이 창안되었다. 초기 인도 불상에는 간다라 유형 및 마투라 유형과 더불어 제3의 유형이 존재하였다. 바로 안드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드라는 인도 동남부의 크리슈나 강 유역을 말한다. 이 일대도 교역로상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발달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이 있으나 대표적인 곳은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콘다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대부분 입상인데, 간다라나 마투라의 불상과는 다른 형식이다. 머리에는 작고 나지막한 육계가 솟아 있고 나발이 덮여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대의를 입고 있다. 대의가 발목 부분에서 곡선으로 말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끝을 왼손으로 잡고 있다. 이 특징적인 유형은 스리랑카에 그대로 수용되어 약 천 년 동안 이어졌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드라의 불교미술은 나가르주나콘다의 불사佛事を 후원한 익슈바쿠 왕조가 4세기에 멸망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기원후 320년 파탈리푸트라에는 새로운 왕조가 열렸다. 갠지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등

장한 강성한 제국인 굽타 왕조(320~550)는 궁정과 큰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문학과 음악, 미술이 모두 번성했는데, 특히 미술은 그때까지 전개되어 온 발전이 절정기를 맞아 고전적인 모델로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파급되었다.

굽타 왕조는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당시 종교 신상은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를 반영하듯 난숙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곳은 마투라와 사르나트, 아잔타이다. 마투라는 기원후 3세기 후반을 고비로 100여 년간 침체기를 겪고 4세기 후반부터 다시 발전을 지속하여 5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았다. 쿠산대에 형성된 토대 위에 그동안 축적된 기술적 역량이 정점에 이르러 표현이 더욱 정교해지고 조각도 정세하며 모든 부분이 치밀한 비례에 따라 구성되었다. 성스러운 상은 완벽한 비례를 가져야 한다는 인도인들의 조형관을 반영하여 붓다의 초월적 성격이 한껏 강조되었다. 마투라의 불교 조각은 5세기 중엽을 정점으로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완성된 굽타 양식은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뒤이어 전성기를 맞은 사르나트의 불교조각은 마투라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도 마투라 불상을 연상시키는 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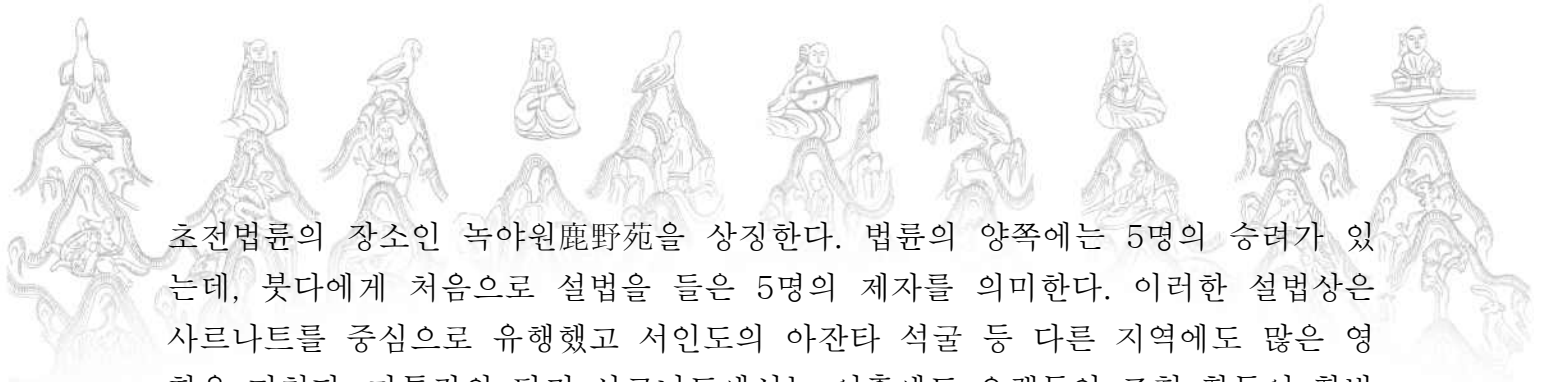
그림1. 입상(마투라, 5세기 중엽)

힌두교도들의 최고 성지인 바라나시에 인접한 사르나트는 붓다가 첫 설법을 펼 곳이다. 굽타시대 이전 사르나트가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하였다. 사르나트에서 만들어진 초기 불상은 쿠산시대 마투라의 초기 보살상의 서투른 모작들에 불과하다가, 5세기에 들어서서 마투라의 불교조각 양식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창출하였다. 사르나트 불상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470년대에 이룩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걸작인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은 인도 불교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이다. 붓다는 방형의 대좌에 앉아 설법인의 손갓춤을 하고 있다.



그림2. 초전법륜상(사르나트, 5세기 말)

대좌의 앞면에는 수레바퀴가 놓여 있고 그 좌우에 사슴이 두 마리 있다. 수레바퀴는 전법륜(轉法輪)을, 사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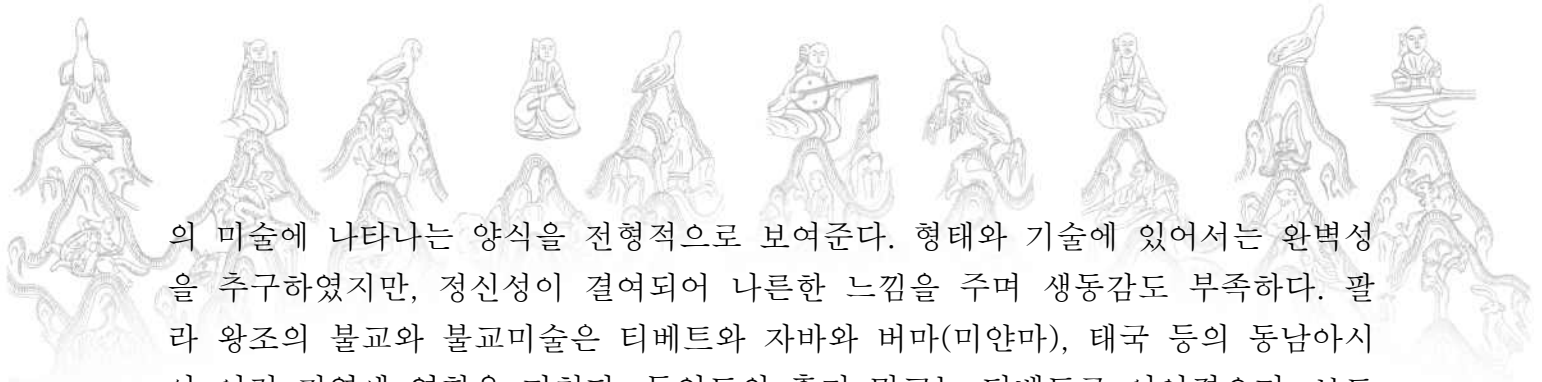
초전법륜의 장소인 녹야원鹿野苑을 상징한다. 법륜의 양쪽에는 5명의 승려가 있는데, 붓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들은 5명의 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법상은 사르나트를 중심으로 유행했고 서인도의 아잔타 석굴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마투라와 달리 사르나트에서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조형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또한 사르나트의 불상 양식은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시대 불상, 태국의 드바라바티시대 불상, 캄보디아의 전前-앙코르기 불상 등 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형성에 기여했고, 부분적으로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상이 만들어지던 470년대에 굽타 왕조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국은 곧 와해되었으나 왕조의 명맥은 550년경까지 유지되었다. 미술사적으로도 대략 이 시기까지를 굽타시대로 본다. 이 이후 800년경까지를 포스트-굽타기라 부른다. 굽타시대 이래 점차 흥기한 밀교는 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에 따라 불교미술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밀교 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도의 밀교는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발전하였다. 4~6세기에 성립된 초기 밀교는 중심적인 붓다가 석가모니였고, 신앙행위는 다양하게 변화된 형상의 관음보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굽타시대의 마투라, 사르나트, 아잔타, 칸헤리, 아우랑가바드 석굴 등지의 불교미술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중기 밀교에서는 중심적인 붓다로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 Mahāvairocana, 대일여래大日如來)가 등장하고 밀교적 신관을 도형으로 표현한 만달라를 수행에 사용했다. 만달라에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네 방위마다 붓다를 중심에서 외곽으로 전개되는 도형의 각 구역에는 8대보살과 타라 등 다양한 계위의 보살들과 신들이 자리 잡았다. 중기 밀교미술은 엘로라 석굴과 동인도의 오릿사, 갠지스 강 유역의 보드가야와 날란다 등지에 상당수가 전한다. 8세기에 성립된 후기 밀교는 탄트라tantra 불교라고도 불린다. 이 단계의 밀교는 힌두교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사크티śakti(여성적인 에너지)와 그것을 형상화한 여신 숭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불교의 근간인 반야般若와 방편方便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관념을 여성과 남성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적 결합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실제로 성적 행법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후기 밀교에서는 중생들의 무명無明을 깨뜨리는 분노한 모습의 신들이 등장하고, 대극의 합일을 상징하는 남녀 교합 자세의 상도 만들어졌다. 후기 밀교는 동인도 지역에서 티베트로 건너가 흥성하였다.

굽타시대 이후 대부분의 왕조들은 힌두교를 믿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점점 세력이 위축되었다. 신관이나 의례에 있어서 힌두교에 동화되는 현상도 뚜렷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미술은 팔라 왕조의 동인도 지방에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었다. 750년경 벵골과 비하르 지방을 거점으로 창시된 팔라 왕조의 미술은 고전기 이후





의 미술에 나타나는 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형태와 기술에 있어서는 완벽성을 추구하였지만, 정신성이 결여되어 나른한 느낌을 주며 생동감도 부족하다. 팔라 왕조의 불교와 불교미술은 티베트와 자바와 버마(미얀마),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동인도의 후기 밀교는 티베트로 이어졌으며, 보드가야의 불당을 모방한 건물은 버마의 파간과 태국의 치앙마이, 네팔의 카트만두에도 세워졌다. 벵골과 비하르는 인도에서 늦게까지 불교가 남아 있던 곳이었으나, 이곳에서도 11세기 이후 세나 왕조시대에 힌두교가 발흥하면서 불교가 크게 위축되었고, 1194년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으로 인도 각지의 불교 사원과 불교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 신석기인과 장례

윤지연 | 102호 신석기실 | 18:00~18:30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은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매장 방법과 무덤의 형태, 그리고 시신과 함께 묻는 켜묻거리가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신석기시대에는 세골장洗骨葬, 굽혀묻기[屈葬], 펴묻기[伸展葬] 등 다양한 매장 방법을 이용하여 구덩무덤[土葬墓], 돌무지무덤, 독무덤, 동굴무덤 등 여러 종류의 무덤을 만들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얇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은 뒤 흙이나 작은 돌, 조개껍데기, 토기 조각 등으로 덮은 구덩무덤이다. 돌무지무덤은 화장시설이자 무덤으로, 독무덤은 어린아이의 무덤 또는 세골장 무덤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에는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에 집단 무덤을 만들기도 했다. 부산 가덕도 유적에서는 인골 48구와 토기, 석기, 뼈로 만든 작살과 낚싯바늘, 꾸미개 등 다양한 켜묻거리가 출토되었다. 울진 후포리 유적에서는 일상생활 장소와 구분되는 산 정상의 공간에 40명 이상의 인골을 추려 묻은 무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골을 덮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매끄럽게 간 돌도끼 180여 점이 확인되어 당시 장례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영 연대도 유적에서도 15기의 무덤에서 인골과 토기, 석기, 꾸미개 등의 켜묻거리가 발견되었다. 춘천 교동 유적에서는 인골 3구가 확인되었는데, 머리가 벽 쪽을 향하고 발이 가운데 방향으로 모이도록 의도적으로 시신을 눕혀 놓아 장례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석기시대에는 종교적, 주술적 성격을 지닌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의미와 당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림1. 후포리 유적 출토 돌도끼



그림2. 연대도 유적 출토 꾸미개

## 왕릉 출토 고려청자

서유리 | 303호 청자실 | 19:00~19:30

고려시대 왕실은 청자의 주요 수요처였다.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는 편년을 알려주어 청자의 시대적인 양상을 읽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릉 등 왕실과 관련된 곳에서 출토된 청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려 17대 인종仁宗(재위 1122~1146) 장릉張陵, 19대 명종明宗(재위 1170~1197, 죽은 해 1202) 지릉智陵, 21대 희종熙宗(재위 1204~1211, 죽은 해 1237) 석릉碩陵 등에서 출토된 청자는 당대 최고의 왕실 청자로 주목받는다.

대표적인 작품은 장릉에서 출토된 국보 94호 <청자과형병>이다. 참외를 본뜬 몸체에 치마처럼 주름이 잡힌 굽다리가 달려 있으며 기벽이 얇다. 입은 여덟 잎의 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조형미를 뽐내고 있다. 빙렬氷裂이 없고, 광택은 은은하여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극찬했던 ‘고려 비색翡色’의 표본을 보인다. 단아한 기형器形과 고도로 정선된 유약과 태도가 돋보이며 세련미를 풍기는 고려청자 전성기의 작품이다. 과형병과 유사한 과편들이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수습되어 생산지가 확인되었다.

지릉 출토 청자들은 1202년이라는 능의 조성 연대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기형, 장식기법, 무늬 등에서 13세기로 편년되는 희종 석릉 등의 출토품과 유사한 점이 많다. 유색은 절정기 비색에 비해 탁한 회청색을 띠며 역상감 기법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고려사』에서 고종 42년(1255) 보수했다는 기록에 부합된다.

이처럼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시기적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 청자 변천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고려인들이 구사했던 최고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청자과형병, 높이 22.7cm



그림 2. 청자방형대, 높이 8.6cm



그림 3. 명종 지릉출토 청자

## 고려시대 도자기 장고와 ‘고금고古今鼓’ 연주

서윤희 | 113호 고려1실 | 19:00~19:30

장고(장구, 長鼓, 杖鼓)는 전통 공연예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허리가 가는 몸통이란 뜻으로 ‘세요고細腰鼓’, ‘요고腰鼓’ 라고도 불립니다. 사물놀이의 하나로 우리에게 친숙한 장고의 몸통은 요즘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도자기 장고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도자기 장고는 시흥 방산동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로 청자 발생 초기인 10세기경을 시작으로 하여 13세기 전반경까지 강진 용운리나 부안 유천리 등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가마터에서 다양하게 출토되는 도자기 장고는 조선 시대에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자기 장고의 존재는 상감청자, 비색청자로 청자의 전성기를 이루던 고려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고려시대 도자기 장고에는 음각, 양각, 철화, 백화, 상감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자철화당초문 장고는 철안료를 이용하여 허리에는 국화넝쿨가지 무늬를, 머리에는 모란 당초무늬를 넣었고, 허리에서 양쪽 머리쪽으로는 흰 퇴화선을 찍은 철선을 여러 개 둘렀습니다. 특히 이 장고는 철제로 된 장고태와 함께 발견되어 실제 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후로 도자기 장고는 음악 연주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광시성廣西省 등에서 도자기 요고 연주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 도자기 장고 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려시대 도자기 장고를 복원하고 중국 소수민족의 장고를 조사연구하며 동아시아의 도자기 장고의 전통을 복원, 창작, 연주하는 ‘조종훈의 고금고’ 팀이 도자기 장고로 고려실에서 청아한 연주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림1. 청자철화당초문장고



그림2. 복원된 도자기장고  
(조종훈)

※ ‘조종훈의 고금고’ 소개 (장고: 조종훈, 통소와 대금: 최민, 생황: 김지현, 양금: 윤은화)

조종훈은 동해안별신굿 이수자로 2015년부터 <한.중 古今 鼓-실크로드 위의 도자기 장고&세요고>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중 古今 鼓’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